

7/19/15

설교 제목: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가 됩시다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잠언 31 : 10 - 31

(잠 31:10)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잠 31:11)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을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잠 31:12)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잠 31:13)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잠 31:14)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 오며 **절관주** 겔 27:25

(잠 31:15)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절관주** 눅 12:42

(잠 31:16) 밭을 살피고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절관주** 롬 12:11

(잠 31:17)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잠 31:18)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잠 31:19)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잠 31:20)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잠 31:21)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흥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잠 31:22)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잠 31:23)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잠 31:24) 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31:24)

(잠
31:25)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잠
31:26)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잠
31:27)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절관주** 딤전 5:14

(잠
31:28)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잠
31:29)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절관주** 잠 12:4

(잠
31: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
31:31)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본문이 포함된 잠언 31 장은 잠언 마지막 장으로 르무엘 왕이 기록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잠 31:1)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잠 31:2) 내 아들이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이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자 왕이된 아들에게 훈계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3 절부터 9 절까지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다른 나라 왕들을 멸망시키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약한 자 가난한 자의 편에 서라, 공의로 재판하라 등등 왕으로서의 전반적인 행동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10 절부터 31 절까지인 본문은 한 남자로서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하는가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위한 자' 혹은 '하나님께 바친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르무엘 왕에 대해 현재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솔로몬 왕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밋세바입니다.

밋세바는 다윗 왕의 아내이자 솔로몬 왕을 낳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밋세바가 처음부터 다윗 왕의 아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디 밋세바는 이스라엘의 충성된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은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 왕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녁 때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우연히 목욕을 하고 있던 밋세바를 목격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육체를 훑쳐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잊지 못하여 번민하던 다윗 왕은 결국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관계를 맺습니다.

그로 인해 밋세바의 몸에 이상이 생겼고 다윗 왕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우고 있던 밋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하룻밤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할 기회를 만듭니다.

당시는 유전자 검사 같은 친자 확인을 할 방법이 없었으니 비슷한 시기에 잠자리를 가져 아기를 가졌으면 제 자식이려니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잠자리를 거부하고 그냥 전쟁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더 이상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던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충성스런 부하 장군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서 최전방에 내세우도록 지시하여 전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가진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진 밋세바가 아들에게 이러 저러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고 조언을 할 자격이 있을까? 머리 속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여인이기에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단 서너 장으로 묘사된 밋세바의 인생이지만 밋세바 자신은 죽을 때까지 남에게 하소연조차도 할 수 없는 첫 남편 우리아에 대한 죄책감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후회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계에 들어옴으로써 처첩들 간에, 그 자식들 간에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 속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평생 가슴 조리고 긴장하며 눈물로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진흙탕의 삶을 살았지만 휘몰아치는 자신의 삶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니 자신의 전부나 다름이 없는 아들,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만큼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만은 그런 삶을 물려 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밧세바는 아들이 자신과 같은 삶의 전철을 밟지 않고 밝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아들에게 어머니로서 이런 조언을 하게 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밧세바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내감으로서 최고의 여자를 현숙한 여자로 꼽습니다.

(잠 31:10)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란 히브리어로 '하일'인데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착하다' '아름답다' '지혜롭다' '덕스럽다' 등등.....

그러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들에게 하일이라고 하면 최고의 찬사라고 합니다.

밧세바는 여자의 참 가치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숙한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이 같은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를 가진 남편은 진주보다 귀한 보석을 소유하고 있는 복된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란 어떤 여인을 말할까요?

본문 30 절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31:30) 받을 것이라

한 마디로 현숙한 여자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그 분을 존경하고 극진히 사랑하여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현숙한 여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1.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다고 했습니다.

(잠 31:12)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엡 5: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엡 5: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엡 5: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이 시키는 일이라면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무조건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내어 주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남편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인지라 때로는 악하고 지혜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무조건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현숙한 아내는 자기 남편을 악한 일에서 손을 떼게 하여 올바른 인생의 길로 지혜롭게 이끄는 것입니다.

(벧전 3:1)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벧전 3:2)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현숙한 여인은 남편 앞에서 항상 바르고 정직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남편의 신임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바른 행실로 인하여 믿지 않던 남편이 아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합니다

(잠 31:13)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잠 31:14)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 오며

(잠 31:15)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잠 31:16) 밭을 살피고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잠 31:17)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잠 31:18)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잠 31:19)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부지런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15 절에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18 절에서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한다는 말입니다.

생활 전선에 앞장서서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진정 현숙한 여인임을 제가 입증해 드립니다.

3.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이웃을 돌아봅니다.

(잠 31:20)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부지런히 일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잘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압니다.

4.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를 나타냅니다.

(잠 31:17)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힘으로 허리를 묶는다는 말은 진리로 그 허리띠를 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 31:25)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를 나타내며 산다는 말입니다.

5.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지혜가 있으며 인애합니다.

(잠 31:26)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의 입에는 지혜가 있으며 말에는 인애의 법이 흐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받을 복에 대하여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같이 들리지만 실제로 자신이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자신이 수확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잠 31:11)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이 핏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산업이란 그 집에서 경영하는 생업 수단입니다.

하는 일마다 번영하고 손이 닿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 28 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 반죽 그릇에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 남편의 칭찬과 자식들의 감사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31:28)

(잠

31:29)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특히 가족에게 인정 받고 칭찬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함께 생활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가장 가까운 가족, 특별히 자식과 남편에게 칭찬과 감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인생에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자식은 노년의 부모에게 추수한 작물과도 같습니다.

추수때가 되어 논 가득히 잘 길러 주어 고맙다고 고개 숙인 황금빛 이삭들로 출렁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동안의 수고와 힘들었던 순간들은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뿌듯한 가슴으로 복받칠 것입니다.

또 남편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칭찬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아름답다, 성격 좋다, 잘 낳다 등등의 입에 발린 소리들을 한다고 해도 칭찬 받을 때 잠시 기분이 좋을 뿐이지 행복해지지는 않는 법입니다.

여자는 제 아무리 잘났어도 남편의 사랑을 먹고 남편의 칭찬을 들으며 살 때에 인생의 참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3. 그 행한 일을 인하여 남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

31:31)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여인의 덕행이, 그 여인의 현숙함이 이미 온 성에 두루 퍼져서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상적인 아내상에 대하여 훈계한 내용을 본문을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비단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남편된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주보다 더 가치있는 현숙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